

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		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	책임자	과 장 김태오 (044-201-3768)
		담당자	사무관 이승원 (044-201-4091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올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은?

- 국민은행, 온실가스 9,460톤 감축 ... 최근 3년간 7,174백만원 투자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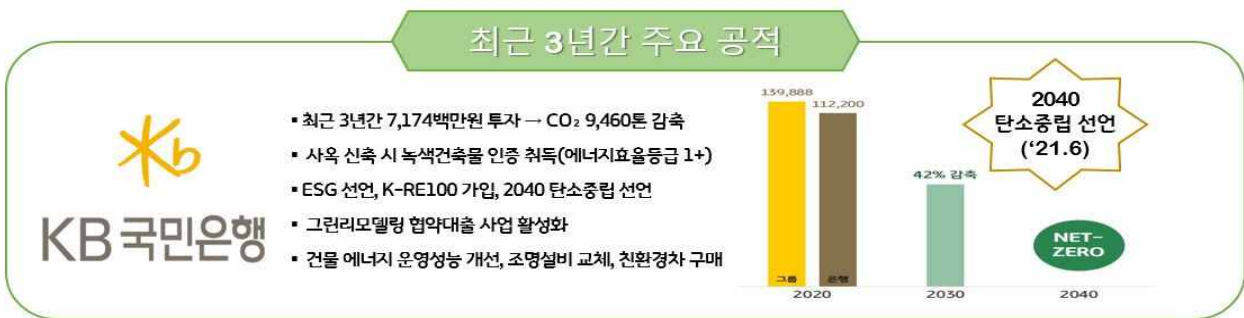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‘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’ 우수기업으로 (주)국민은행을 선정하였다.
 - * 목표관리제란,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多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협약(정부 ↔ 업체)을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·이행·평가하는 제도(2010년~)
 - 국토부는 2019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·확산 및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.
-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(‘22년 기준 업체 51개, 업체 내 사업장 6,655개)가 제출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·건물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국민은행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.
 - ‘국민은행’은 지난 2012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,
 - 건물 에너지 운영성능 개선을 위해 영업점 및 전산센터의 운영방식을 조정하고, 신·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설비 확대, 조명설비(형광등 → LED) 개선 및 업무용 차량 친환경자동차(K-EV100 선연) 구매 등 최근 3년간 7,174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9,460tCO₂eq의 절감 효과를 보였다.

-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치환분석해 보면 소나무 117만 그루 식재효과 (강원지역 30년산 기준), 약 989만㎡의 산림조성 효과, 3,893대의 승용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,



* ‘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’(2019, 국립산림과학원) 참조

- 특히 건물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개선한 효과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장기간 누적 발생되므로,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, 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신사옥 신축 시 ‘건축물 에너지효율 1+ 등급’ 취득은 물론, 2040년 탄소중립(그룹기준)을 목표로 ‘중장기 탄소중립 전략선언 및 ESG 추진위원회’를 신설하였으며,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‘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 사업’(최근 3년간 : 6,757건, 625억원)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

- 한편, 국토부는 목표관리업체의 적극적인 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 에너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‘감축기술 발굴 지원’, 신규 진입업체의 원활한 제도 대응을 위한 ‘맞춤형 제도이행 지원’, 애로 사항 개선·법정 사무부담 해소를 위한 ‘상시지원서비스’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업체들이 단순히 설정된 배출목표만을 이행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, 자발적인 추가감축 활동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”면서,
- “국토부는 앞으로 목표관리업체에게 적극적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함은 물론, 다양한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, 최신 감축기술을 발굴하고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 <총괄>	건축정책관실 녹색건축과	책임자	과 장	김태오 (044-201-3768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원 (044-201-4091)
<공동>	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	책임자	실 장	최재동 (02-6362-2002)
		담당자	차 장	이수현 (02-6362-2031)

